

## 민중운동과 민중신학\*

안병무

예수의 등장과 더불어 그는 곧 민중에 의해서 둘러싸입니다. 이로부터 사건이 연속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들에게 갔다는 인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는 프로그램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민중에게 끌려다닌 인상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끌리는 것이 끄는 것이고 끄는 것이 끌리는 것입니다. 사건 중에서 소경이 눈을 뜨고, 정신병자가 낫고, 앓은뱅이가 걷는 등 병의 치유 얘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계획적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나섰다는 인상은 별로 없습니다. 주도권 (initiative)은 병자 자신, 혹은 그와 함께 하는 친척, 아니면 그의 친구들이 취합니다. 예수는 수동적으로 그의 욕구에 응할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

---

\* 이 글은 1987년 12월에 한신대에서 있는 한신대 정년퇴임 기념강연을 다듬은 것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실습니다.

하나는 예수가 그들을 고쳤을 때 내가 너를 고쳤다 그런 것이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 선언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잠깐 보류해 두면 '네가 너를 낫게 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포함시킨다면 그것은 절대 그리스도론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네가, 너의 자의식이, 네게 대한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고향 또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권고입니다. 병을 고친 다음에는 예수를 따르겠다는 사람마저도 그것을 막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병에서의 해방은 예수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짙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어도 주객도식은 지양됩니다. 예수는 그들을 본향에 돌려보냈고, 돌려보내는 것을 병 고치는 일과 결부시켰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잃어버린 사회적 권리를 도로 찾아 주는 해방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민중과 더불어 살던 예수는 마침내 그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진합니다. 복음서에는 왜 그가 최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진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시기는 바로 엑소더스, 즉 이집트에서 해방된 그 때를 기념하는 해방절이라는 것은 주목할 일입니다. 그 때 많은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운집했습니다.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다가 밤이면 시외로 빠져나가 어디엔가 은신하고 있었다는 서술입니다. 그것은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많은 군중들에게 자신을 묻고 밤에는 어둠에 자신을 감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침내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숙청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을 만큼 철저히 무너지리라고 저

주합니다. 예루살렘, 많은 예언자의 피를 흘린 예루살렘, 철저히 진실을 거부한 예루살렘. 성전, 야훼를 감금한 감옥, 다윗 왕좌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 역할을 한 허상, 지금은 민중에게서 경제적 착취의 본산이 된 복마전. 이것은 영원히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예루살렘, 반성전적인 행동은 민중운동의 일환으로서 크라이막스의 전초전이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예수는 마침내 체포되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처형될 때 그의 좌우에는 이른바 강도라고 번역되는 소위 레스타이라는 이들과 함께 처형됩니다. 로마 제국은 모름지기 예수를 젤롯당의 일원으로 보아서 그를 처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 로마 제국의 반란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철저히 정치범으로 체포되어서 처형됐다는 말이 됩니다. 하여간 그는 체포되어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그를 따르던 민중들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어떤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를 따르던, 가장 측근에 있던 자들도 다 도망을 했고, 해방절에 모인 군중들도 그의 편에 선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한 패배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는 공포 분위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를 어떻게, 누가, 왜, 어디서 죽였느냐 하는 말을 정확히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후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도 공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 예수의 민중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취한 방법은 예수의 사건을 어떻게든 전하기는 전해야겠는데 물론 공적으로 문서화할 수도 없고, 공적으로 말할 수도 없으니까 이름 없는 예수의

민중들이 입에서 입으로 자기들이 본 예수의 사건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는 죽었다. 집권자의 측에서 보면 이것은 유언비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건은 유언비어의 형태를 가지고 계속 뻗어나간 것입니다. 이 유언비어가 예수의 사건의 증언이, 예수의 죽음의 사건의 증언이 다 시들어져간, 다 죽어간, 다 절망한 예수의 민중을 다시 일으키는 계기를 준 것입니다.

그의 민중들은 재기했습니다. 다 탄 재에서 불이 일어나듯이 예수의 민중은 일어났습니다. 패배했던 저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100여 명이라고 했는데 일약 한 3,000 명이 불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포에 움츠리고 있었던 그의 민중들이 그를 죽인 권세에 정면으로 맞서서 사자후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예수를 처형한 바로 50일 만인 오순절에 그들이 일대 사건을 일으킵니다. 예수의 민중들은 예루살렘으로 결집했습니다. 예수를 처형한 고장, 저들이 혼비백산해서 등을 돌렸던 고장, 갈릴리 사람들을 천시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위협분자로 경계하는 그런 고장, 바로 그 고장에 모여든 이 예수의 민중들은 거기에 모여든 군중의 한복판에서 예수를 죽인 저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고발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여 온 이들을 충동했습니다. 청중들은 “저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들의 말이 우리말로 들리느냐”고 놀라움을 표시합니다. 이것을 성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날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갈릴리 민중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이런 전환을 가져오게 했나?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한 것을 체험함으로써 이런 전환점이 왔다고 합니다. 부활이 무엇

입니까? 부활한다는 말의 한 단어로서 에게이로(egeiro)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봉기한다는 말로도 쓰입니다. 저들은 봉기했습니다. 부활 경험은 저들을 죽음에서, 절망에서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저들은 죽은 예수 가 일어났다고 증언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저들은 예수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일어났다는 신념이 저들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난 예수의 민중들은 약소민족을 침략하기 위해서 만든 로마의 군사도로를 거꾸로 이용해서, 로마의 점령 도시를 하나하나 점령해 가면서 마침내 로마의 수도 로마까지 돌입하게 됐고, 그것을 기점으로 그들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사건에까지 그 일은 추진이 됐던 것입니다.

이상은 70년대 한국의 민중사건에 충격을 받은 눈으로 본 성서의 맥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민중신학의 과제는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민중사건을 체험함과 동시에 성서를 재해석하는 것 외에 적어도 다음 세 가지의 물음이 제기되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민중사건이기 때문에 한국 역사와 현실에서 민중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오랜 그리고 두터운 지층을 형성한 그리스도교 유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고, 끝으로, 성서에 나타난 민중사건과 한국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일어나고 있는 민중운동과 그 사건을 어떻게 관련시켜야 하는가 하는 과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순수 학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도 하지마는 지금 제가 성서를 풀이한 얘기 중에서나 제가 말한 얘기 중에 그 얘기 자체가 정통적인 신학의 반제로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

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의 역사와 오늘의 현실을 민중신학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서남동 교수는 신학자로서 한국 역사를 민족사관으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풀이는 왕조사관에 대입한 민중사관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작업에서 신학과 어떻게 접목시키려는가 하는 데 다음과 같은 열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성령론적 공시적 해석이라고 일컫습니다. 이것을 전통적인 기독교론적 통시적 해석과 대조를 시킵니다. 그는 기독교론적 해석에서는 이미 주어진 종교적인 범주에 맞기 때문에 적합성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성령론적 해석에서는 지금 현실의 경험과 맥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적합성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서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론적 해석에서는 나사렛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속죄한 것이지만 성령론적 해석에서는 내가 예수를 재현한 것이고 지금 예수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의 입장을 양자택일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상호보충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민중신학에서는 현재의 성령의 역사가 문제의 핵심이고 물려받은 전통은 해석의 전거의 구실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입장에서 그는 김지하의 답시인 『장일단』에서 한국의 민중전통과 그리스도교 민중전통의 합류를 봅니다. 그가 성령론적 공시적인 해석이란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선교(Missio Dei)를 민중신학의 기조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역사도 그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역사 개입은 바로 해방의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민중 속에서 일어납니다. 모세를 민중해방의 역군으로 내세운 하느님은 또한 한국에서 전봉준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내세웠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민중해방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중해방사건의 이해를 심화하고, 성서의 민중해방사건을 통해서 한국의 민중해방사를 전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이 민중신학의 주장입니다. 여기까지 민중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론이 없습니다. 단 아직 답변해야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민중이라는 이 두 말입니다. 일반 민중론에서는 하느님이라는 말이 꼭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민중신학에서는 하느님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두 다른 대상으로 보이는 이것이 전제되어 있고 그것이 합류를 필요로 한다 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둘은 엄격히 다른 것인데 이것을 합류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한 사건, 또는 한 현실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한 언어가 하느님이요, 민중이 아니겠나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민중운동사에서도 인내천이라는 기치가 내세워졌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실체에 인이라는 것과 천이라는 것의 합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사건, 또는 한 현실을 말하는 두 언어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하여간 민중신학은 한국의 민중체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사적인 맥에서 민중사건을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론적 전통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과제입니다.

이것도 아직도 진행시켜야 할 과제입니다. 저는 화산맥이라는 말로 설명해 보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화산맥은 남과 북, 또는 동과 서로 뻗쳐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저기서 동시적으로

또는 통시적으로 폭발되어서 활화산을 이룹니다. 해방의지는 화산맥처럼 지구를 꿰뚫고 잠재해 있다가 그때그때 지각을 뚫고 분출해서 활화산이 일어나듯이, 민중사건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거기에 동과 서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의 선교입니다. 하느님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거나 안 부르거나 아무 데서나 자기 일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일어나는 사건들은 각기 독자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같은 맥에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의 구분이 배제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에 일어나고 있는 민중운동과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그리스도교적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제 얘기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의 민중운동은 줄기차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의거 이래로 수천의 민중이 학살되었고, 수천의 민중이 투옥되었고, 수십의 학생노동자들이 분신자살함으로써 독재세력에 항거했습니다. 밀리고 미는 일이 반복됐는데, 마치 모세의 민중과 파라오와의 대결을 방불케 합니다.

나는 여기서 바로 이제 일어난 그리고 바로 어제 일어난 민중봉기사건의 계기를 마련한 박종철 군의 피살 사건을 그리스도교적 입장에서 그 성격을 풀이해 보고자 합니다. 박 군은 한 학생으로서 민주전선에 가담해서 경찰의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한 그가 아무도 모르게 경찰에 납치되어서 무서운 고문으로 피살됐습니다. 이것으로 종철 군의 저항운동은 끝났습니다. 그의 투쟁 의지는 너무도 백없이 끝났습니다. 그는 분명히 투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투쟁과 피살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는 아닙니다. 그의 투쟁이 피살에 해당될 만큼 가열했다면



그는 영웅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영웅이 아닙니다. 흔히 있어 왔듯이 그의 죽음을 한낱 자살로 처리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은 담담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혼한 일종의 하나로 끝나고 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의 현장에 불려간 한 의사가 그의 죽음이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한 증언, 그것이 큰 계기가 돼서 활화산이 되어서 민중운동으로 번져 나가게 됐습니다. 분노한 민중의 함성이 정부당국을 얻거꾸 거짓말을 하게 했고, 마침내 일부 책임자들이 물러나야 하는 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이로써 폭발된 활화산은 진화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사제단에 의해서 발표된 내용이 마침내 다시 민중폭발적인 사건으로 번져 갔습니다. 이 활화산은 계속 불을 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죽은 한 학생이 계속 민중봉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민중봉기 속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종철이라는 한 학생이 위대해서 홀로 일으킨 사건입니까? 아니, 민중이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민중은 박종철의 죽음에서 자기들의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어남으로써 죽은 박종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 군과 민중은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박 군은 크리스천도 아니고, 따라서 그의 사건이 교회 내의 일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민중신학은 이 사건에서 그리스도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 사건에 관여되지 않은 그리스도라면 그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스도는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부활사건과 박 군의 부활사건은 한 맥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건이 아키타이프

(archetype), 즉 원형적인 활화산이라면, 박종철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민중사건은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까닭은 예수의 사건은 민중해방사건이고 박종철 사건도 민중해방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민중운동에서 그리스도 사건을 보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민중신학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중신학은 언제나 민중운동에 바짝 붙어서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을 증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서 한 구절을 읽고 끝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도 자기 피로 민중을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가 당한 수치를 걸머지고 영문 밖에 계신 그에게로 나갑시다”(히 13:12-13).